


고개숙인 남성과 바이애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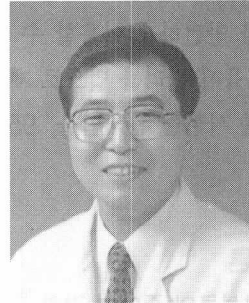
엔진이 잘 걸리지 않고, 걸렸다가도 쉬 꺼지는 자동차가 있다. 10년 정도 타기도 했지만 워낙 차를 험하게 운전을 해서 차가 엉망이 되었다. 차를 탈 때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남편과 부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쓴다. 어찌어찌 해서 시동이 걸려 드라이브를 하려하면 고속도로를 잘 달리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부부를 당황하게 한다. 이때 남편은 엔진이 기막히게 잘 걸리고, 한번 걸리면 꺼지지 않는 좋은 약이 있다고 친구를 통해 듣는다. 시동걸기 1시간 전에 주유통에 약 1병을 타면 된다고.....

최근 신의 선물이라는 획기적인 약품이 언론에 소개되어 전 세계의 남성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 이미 발빠른 남자들은 한 두번 복용해본 경험도 있으리라. 동서 고금을 통해 남성의 성적 기능은 삶의 질적 면에 있어서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한방에서는 남성의 성기능 장애 중에 특히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을 음위라고 한다. 한마디로 성기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음위중에는 성욕이 있으면서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성욕자체도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성기가 처음부터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가 되었다가도 금방 사그라지는 경우도 있다.

남성 성기의 발기라는 것은 혈액이 성기의 귀두 부분의 해면체에 울혈되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혈액이 공급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혈액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 발기가 되더라도 불충분해지거나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혈관에 이상이 있는 성기능 장애는 많지 않다. 실제 대부분의 발기부전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람들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에서는 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약물 독성검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 후 남성의 성기만 발기된다고 성생활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에 맞는 체력과 심장이 있어야하고 또한 정신적인 안정도 필요하다. 성기만을 위한 성생활로 우리의 진짜 엔진인 심장이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평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체단련을 충실히하고 또한 심폐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원만한 성생활의 기본일 것이다. 이러한 건강한 신체 위에 삼지구엽초(음양곽)을 차로 마시거나 삼일신기환을 복용하면 성신경을 흥분시키고, 정액의 생산을 높여서 성욕을 늘리며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중앙한방병원 원장
임 장 신